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골목의 형성과 연계성

김재훈 · 김홍목 · 조영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논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목 차>

I. 서론	p.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p. 3
2. 연구 지역 및 연구방법	p. 4
II. 이론 및 선행 연구	p. 5
1. 집적이론	
2. 타 지역 선행 연구 사례	
1)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카페골목	p. 6
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p. 7
III. 조사대상지역의 형성	
1. 안지랑 곱창골목의 형성	p. 8
2. 앞산 카페거리의 형성	p. 9
IV. 골목 간 연계성 분석	p. 12
1. 연계성 및 결과분석	p.12
2. 발전 방안	p. 13
V. 결론	p.15
참고자료 및 부록	p. 16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음식문화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그 곳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양식 등이 함께 어우러져 그 지역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로 형성된다.(진경혜, 2007)

같은 맥락에서 대구시에도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골목들이 존재한다. 여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문화적 특색에 따라 다채로운데, 이러한 골목들은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유명세를 타며 관광객을 끌게 되었고 이는 점점 발전되어 특화거리¹⁾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시 남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인 안지랑 ‘곱창골목’과 동일지역 관광명소인 앞산 ‘카페거리’를 연구 지역으로 한다. 두 특화거리는 형성 배경과 시기는 다르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다. 따라서 지역 간 상호 연계성²⁾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연구의 과제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는 어떠한 배경으로 형성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거리가 근접한 두 골목 간의 어떠한 연계성이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곱창 골목과 앞산 카페거리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파악하고 거리가 근접한 두 골목 간의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거리 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거리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를 연구지역으로 한다.

- 1) 특화거리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의 지역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행태가 다양화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업형태로 동일 혹은 유사한 기능의 상업 업종들이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군집을 이루어 입지하는 거리를 말한다.(손재룡, 2003)
- 2) 여기서 연계성이라 함은 안지랑 곱창골목 또는 앞산 카페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곱창골목에서 카페거리로, 혹은 카페거리에서 곱창골목으로 이동하는 방문객의 이동 패턴, 즉 인적 연계성을 말한다.



그림 1. 《 안지랑 곱창골목 및 앞산 카페거리 지도 》

출처 : 네이버 지도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보다 계량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설문 조사 방법과 상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먼저 두 지역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에 대해 선행 연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하고자 하는 곱창골목과 카페거리 사이에서 시행하였으며 안지랑 곱창골목 방문객을 대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공간적 범위는 입구부터 카페골목과의 접점의 거리를 바탕으로 진행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휴일 저녁(2014. 11. 09. 16시 ~ 21시)으로 고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시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배제하여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 하였다.

표 1. 설문지 분석 설명

1.	방문객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방문객의 성별, 나이, 거주지, 일행유형(가족, 친구, 연인)을 1번 문항으로 구성한다.
2.	방문객의 이동패턴을 알기 위하여 골목에 오기 전 방문 한 곳을 앞산 카페와 집, 기타장소로 구분하여 2번 문항을 구성한다.
3.	2번 문항과 같은 목적으로 골목 방문 이후에 갈 곳을 2번 문항과 같은 문항으로 3번 문항을 구성한다.

II. 상가의 집적과 거리형성

1. 집적이론

먼저, 소기업의 집적과 관련된 이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Alfred Marshall에 의해 착안된 ‘산업지구³⁾’의 개념을 통해 제창되었다. 그는 동종 산업분야의 다수 전문화된 중소규모의 기업이 일정 지역 내에 집적함으로써 대규모 생산의 이점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하였는데,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산업지구와 함께 ‘집적’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혜경, 2009)

이를 필두로 Marshall은 집적경제를 분석하면서 외부경제에 기인한 동종 업종의 소규모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으로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국지화(localization)’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업종의 전문화로 인해 숙련노동력이나 기계의 공동 활용 등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국지적으로 집적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희연, 2006).

이처럼 곱창골목과 커피골목은 대규모 생산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동종 산업분야의 상가가 일정 지역 내 집적함으로써 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전적 정의는 따로 없으며 공업지구에 빗대어 뜻을 살펴보자면 산업 지대와 교차해 쓰일 수 한 나라나 한 지방에서, 특정 / 불특정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 타 지역 선행 연구 사례

1)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카페골목

삼청동⁴⁾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이 억제된 낙후된 주거지였으나 90년대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의 유입은 삼청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된다(이찬, 2008)

삼청동 일대는 조선시대 북촌(조선 시대에, 서울 안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마을들을 통틀어 이르던 말) 지역이었다.

그림 2. 삼청동 지도



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 삼청동 골목



출처 : 한국관광공사

삼청동 길에 인위적 손길이 더해진 것은 1920년대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삼청동 일대에 한옥군락이 생겨났고 1960년대까지 북촌의 일부로 고급주거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후 고도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었고 점점 낙후되어 갔다. 그러던 중 1990년대 기존 규제가 풀리면서 대형 갤러리들이 유입되고 여러 미술관들이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삼청동길은 갤러리 밀집 지역으로 거듭났다.

삼청동 거리는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한옥건물의 전통미와 갤러리, 카페의 현대미가 조화되어 삼청동만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매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이끌고 있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볼거리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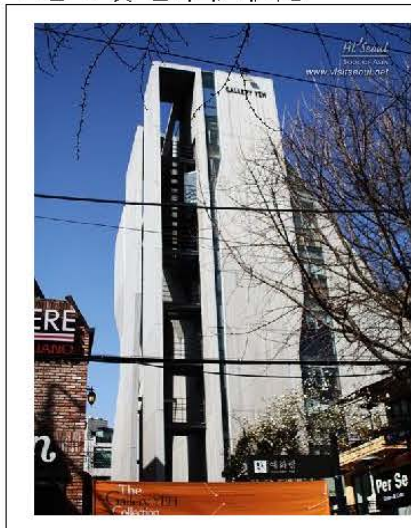
- 4) 삼청동의 동명은 도교(道敎)의 삼청전(三清殿)이 있어서 유래되었다. 삼청동은 도성(都城)의 북쪽 지구에 해당되면서 경복궁의 동북지역인데 산이 맑고(山淸) 물도 맑으며(水淸) 그래서 사람의 인심 또한 맑고 좋다(人淸)는 뜻의 삼청(三淸)이 되었다. (삼청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길은 현재 디자이너 의류 숍과 함께 스튜디오, 카페가 모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강남개발 계획 및 주변의 아파트 개발에 의하여 상업지로서의 좋은 배후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배후지와 주변의 청담동과 압구정동에 비해 낮은 임대료가 주 입지요인이었다. 1985년 예화랑(갤러리)이 이전하면서 관련 업종이 따라왔고, 비로소 갤러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의 거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이상훈, 2011)

이러한 과정은 갤러리의 입지와 더불어 패션관련 업종과 디자인관련 업종이 가로수길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사람을 모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로수 길은 카페, 음식점, 의류점포 등 상업점포가 입점하였다. 이로써 상업가로로서 활성화되고 두 업종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나타났다.(이양희, 2009)

그림 4. 첫 갤러리, 예화랑



출처 : 서울시 관광 정보 사이트

그림 5. 가로수길 사진



출처 : 조민수 외, 2009

III. 조사대상지역의 형성

1. 안지랑 곱창 골목의 형성

안지랑 곱창골목은 안지랑 역 3번 출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안지랑 오거리에서 룬비니 유치원 건너편까지 형성되어 있다. 앞산 안지랑 골 아래에 1972년 안지랑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수년 동안 채소·과일가게, 식육점, 방앗간, 철물점 등 30~40여 개의 점포들로 붐비며 번창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점차 점포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997년 IMF 이후 시장 내 점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림 6. 안지랑 곱창 골목 내 첫 가게, 충북



2014년 11월 9일

‘성주 곱창’을 운영하는 상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1980년대 이북에서 오신 김순옥 할머니께서는 처음 생선구이 집을 하셨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곱창구이를 개발하게 되었고, 시장을 방문하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수입이 높아지자 똑같이 부를 얻고자하는 상인들이 하나 둘 이곳에 집적하게 됨으로써 곱창골목이 형성되었다.

시장이라는 입지적 특성 뿐 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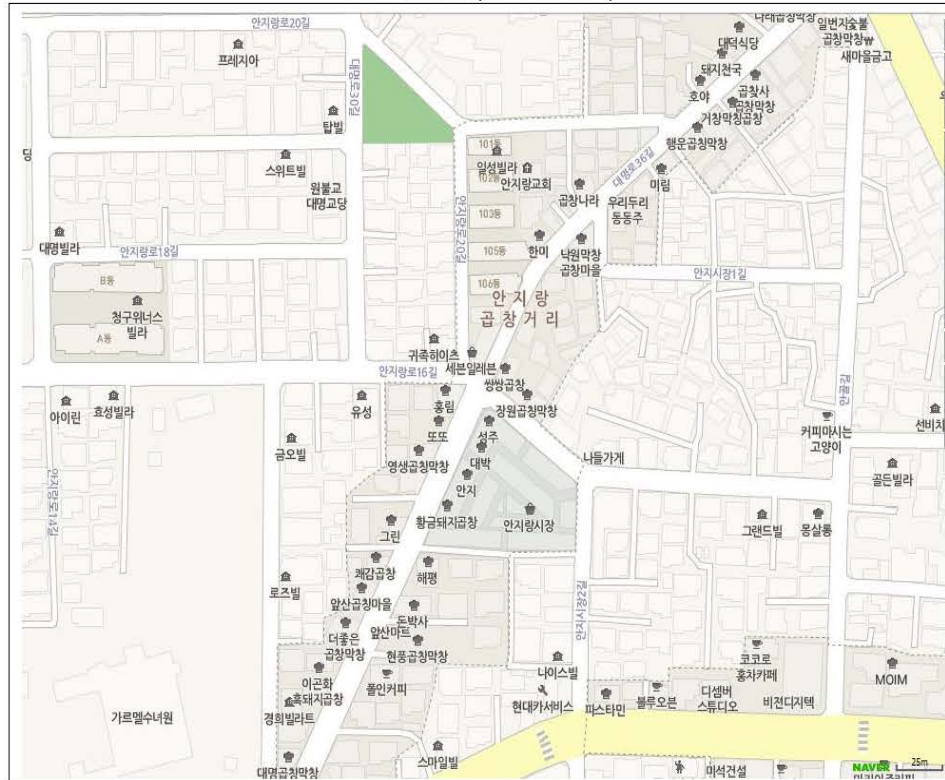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이 집적의 요소가 되었다.

또, 1997년 생겼던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창업의 일환으로 곱창으로 부를 얻고자 하는 점포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 날 대한민국의 ‘맛 골목’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1999년, 곱창가게 상인들의 연합 하에 ‘안지랑 곱창 번영회’로 설립되었다. 4년 뒤인 2003년에는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안지랑 시장 곱창 상인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늘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상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힘을 써 지금은 원조논쟁, 호객행위, 바가지요금’이 없는 ‘3無 골목’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곱창을 씻고, 삶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도 하고 길가에 무질서하게 테이블을 내놓는 집이 많아지면서 미관 상 깨끗하지도 않았다. 이를 상인회장이 구청과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노상 테이블을 깨끗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허가를 얻고, 곱창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겨 악취와 소음 등 민원을 해결하였다. 또한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허가를 받으면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5대 음식 테마 거리로 선정되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특별한 비법으로 재료를 공급받는거나 인근 축사와 연계하여 사육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발달한 점이 단순히 지역 환경에 맞는 특산업종과는 다른 특징이다.

그림 7. 안지랑 곱창골목



출처 : 네이버 지도

2. 앞산카페거리의 형성

연구지역인 앞산 카페거리는 대구 남구에 위치해 있다. 대명동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명동은 대구광역시 소재 동들 중 행정동⁵⁾이 가장 많은 동이다. 남구는 이천동과 봉덕동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기지 때문에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명소로서는 앞산공원, 대덕문화전당, 대덕산성, 승전기념관, 메타세콰이어 길, 이천동 고미술품거리, 앞산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앞산음악회, 앞산 맛 들레길 등이 있다. 앞산은 비슬산의 맥을 따라 그 준령이 대구 도심 앞에까지 이어왔으므로 비슬산 또는 대덕산이라고 불리

- 5) 법정동은 법률에 의해 나뉜 동을 의미하며, 이와 구분되는 행정동, 행정 구역 등은 초기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법정동이 곧 행정 구역 단위였다. 그러나 세분화된 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법정동을 묶을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기존 동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동회(洞會)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중구에서는 시내 변화가의 38개의 법정동을 동성동회, 남성동회, 종로동회, 북성동회, 서성동회로 나누었다). 반면 넓은 동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는 동구(洞區)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서구에서는 내당동을 내당동1구, 내당동2구, 내당동3구, 내당동4구로 나누었다. 이렇게 행정동이 생겨났다. 1960년대 후반 동회는 모두 동으로 명칭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고 있으나 1832년에 편찬된 『대구읍지』에 의하면 성불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대구의 앞쪽(남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앞산’으로 통용되다가 굳어져 고유명사가 되었다.

대명남로와 현충로를 포함한 앞산일대는 그나마 80~90년대 레스토랑, 놀이공원 등의 다양한 여가시설의 대표 장소였다. 1986년 ‘산마리노’라는 레스토랑이 들어서 인기를 끌자 비슷한 분위기의 가게가 1990년대 초반 30여개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1997년 앞산순환도로가 개통되고 통행량이 증가한 대신, 보행자가 반 이상 줄어드는 침체기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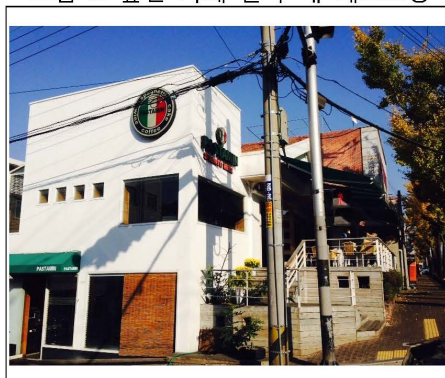
70여개에 달하던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전성기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산마리노와 유사한 레스토랑들이 개업하면서 일대는 일반주택들을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산은 이색적인 카페와 갤러리 밀집지역으로 재 번성하였고 표 2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카페거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림 8. 앞산 카페거리



2014년 11월 9일

그림 9. 앞산 카페 골목 내 레스토랑



2014년 11월 9일

표 2. 남구의 문화 조성 사업

<남구의 문화조성 사업>

2010년 재활성화의 전조를 느낀 임병헌 구청장의 문화조성사업 제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이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월 명칭공모에 나섰다.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카페거리’, ‘까렐로드’, ‘은행단풍길’등이 최종후보로 올랐다. ‘카페거리’가 선호도 조사 참가자의 40.1%의 지지를 얻어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다른 후보 명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이

높은 득표율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479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이들 중 남자가 271명으로 56.6%,여자가 208명으로 43.4%를 차지하였다.

그림 10. 앞산 카페골목



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10과 같이 ‘카페거리’ 당선 대상 구간은 남명삼거리와 대덕천주교회 사이 양측 1.5km 구간인 ‘대명남로’와 앞산네거리와 앞산고가교 사이 양측 1.6km 구간인 ‘현충로(명품거리)’로 최근 갤러리 두 곳과 카페 및 레스토랑 30여 곳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대구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김홍수 남구청 소속 도시경관과장은 이를 계기로 이곳 상권이 되살아나고 문화와 여유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물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골목이 형성되고 집적을 이루게 되었다.

IV. 골목 간 연계성 분석

1. 연계성 및 결과분석

설문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일행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총 53개의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PSS를 통하여 변수 간의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패턴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객의 연령대는 표 3과 같다. 주로 20대가 67.9%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10대(9.4%), 30대(9.4%), 40대(11.3%), 50대 이상(1.9%)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4는 일행의 유형을 나타낸다. 친구끼리 온 일행이 58.5%의 비율로 가장 많고 연인이 26.4%, 가족이 15.1%를 구성하였다.

표 3. 방문객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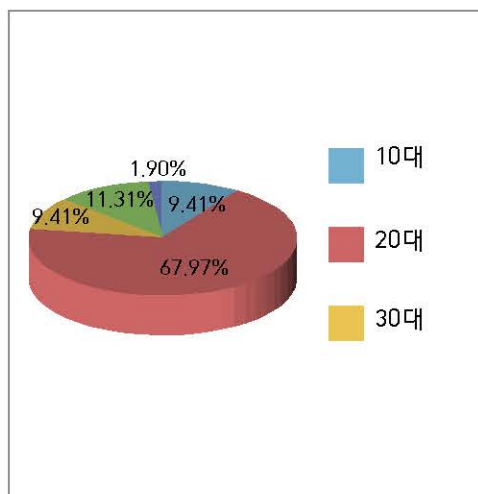


표 4. 일행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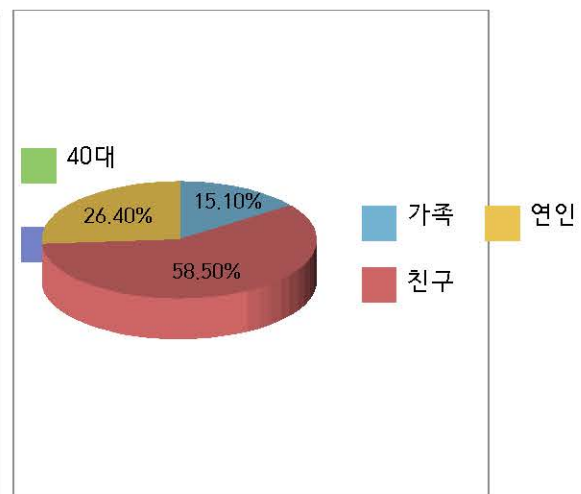


표 5. 안지랑 곱창골목을 오기 전 방문 한 곳

이전에 방문한 곳		
	빈도	퍼센트
앞산 카페골목	8	15.1
집	15	28.3
기타	30	56.6
합계	53	100.0

표 5에는 안지랑 곱창골목에 오기 전 방문한 장소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다. 안지랑 곱창골목을 오기 전에 앞산 카페골목에서 온 방문객은 전체 방문객의 15.1%이다. 집⁶⁾에

6) 집은 다른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집(서울, 충청도 등의 비대구권 지역 포함)에서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바로 오는 경우를 말한다.

서 온 방문객은 28.3%, 기타⁷⁾(대구 시내, 공원, 앞산등산 등)에서 온 방문객은 5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표 6. 안지랑 곱창골목 이후 방문 할 곳

이후에 방문 할 곳		
	빈도	퍼센트
앞산 카페골목	3	5.7
집(귀가)	28	52.8
기타	22	41.5
합계	53	100.0

표 6은 곱창골목 이후에 방문할 장소에 대한 비율로 앞산 카페골목으로 갈 예정인 방문객의 비율은 전체 방문객의 5.7%이다. 집은 52.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시내, 노래방 등)는 41.5%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5와 6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산 카페골목에서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온 비율(15.1%)와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앞산 카페골목으로 가는 비율(5.7%)은 각각의 표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신에 집이나 기타 지역에서 오고 가는 비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산 카페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의 인적 연계성은 높지 않으며, 두 지역 간의 상호 유동 인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2. 발전 방안

자료의 분석 결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안지랑 곱창골목을 방문했지만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예상했던 연계성-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간의-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아가 두 거리의 상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삼청동 카페거리는 주변의 한옥마을과 조화를 이루고, 신사동 가로수 길은 화랑거리와 잘 어우러져 있다. 물론 형성배경과 입지의 형태는 다르지만 앞산 카페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 또한 두 지역 간의 상호 협력적인 발전으로 조화로운 거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앞산 카페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 간의 연계성이 낮은 이유는 현지답사 결과 어느 정도 유추 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7) 기타 지역은 대구 시내에서 쇼핑, 영화 관람 등의 여가 활동을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원(수변공원 등)에서 오거나 앞산 등산 후에 오는 경우 등 다양한 지역이 기타 지역으로 포함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골목의 관계를 중점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7. 미흡점

첫 째, 두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비해 비교적 근접하나 거리 간 보행환경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은 두 지역을 심리적으로 멀게 느낀다.

둘 째, 조명 시설 및 안내(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조명이 적절한 곳에 잘 설치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많은 저녁에 도보로 이동하기 불편하며⁸⁾, anzi랑 곱창 골목에서 카페골목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곳에 타지에서 온 여행객이나 심지어 대구에 사는 사람도 앞산 카페골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셋 째, '거리'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 흔히 유명 '거리'라 불리는 곳. 가령, 삼청동카페거리 돌담의 아늑한 풍경, 신사동 카페거리 가로정비와 유럽풍 등은 아늑한 풍경을 주거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보행자는 거리를 걷는 것 자체에서도 편안함이나 문화성을 가진다. 따라서 카페골목과 곱창골목에서 도보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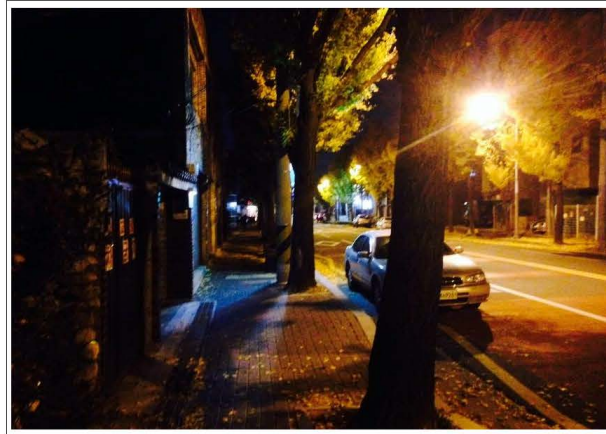
그림 11. 곱창골목(왼쪽)과 카페거리(오른쪽)의 연결 부분



2014년 11월 9일

8) 그림 11, 12를 보면 곱창골목에서 카페거리로 가는 길이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위의 카페거리 방향으로 가는 길



2014년 11월 9일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에서 두 골목 간의 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명과 보행로 같은 시설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거리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각 골목의 상인들도 자신들의 골목뿐 아니라 두 골목 전체의 연계를 위해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 앞산 카페 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 또한 어느 유명 골목 부럽지 않은 매력 있는 골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반영하여 발전한다. 대구시도 이러한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먹거리 골목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먹거리 골목인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골목의 연계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거리 간의 연계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답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유추하였고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살펴본 바로는 기존 대구시 먹거리골목은 먹거리 자체로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보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는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또한 특색 있는 거리를 찾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곧 관광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도 앞서 성공한 사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

해 앞산 카페거리와 안지랑 곱창골목 같은 거리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매력 있는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손재룡 외, 2003. “특화거리조성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Network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3권 : p. 488.
- 예채영, 2013 “대구광역시 앞산 문화거리의 활성화 방안 : 앞산카페거리를 중심으로”, 국내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 이상훈, 2010, “상업가로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A Study on Activation Factors of Garosu-gil in Sinsa-dong as a Commercial Street.”, 국내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이양희, 2009, “신사동 ‘가로수길’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민수 외 7인 2009, “바람 부는 날이면 가로수 길을 가야 한다.”, 아시아경제.
- 진경혜, 2007. “서울시 음식거리의 형성배경과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street of Seoul” 국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네이버 지도 : <http://map.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대구광역시 남구청 : <http://www.nam.daegu.kr>
-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 <http://www.visitseoul.net>

<부록>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과의 인터뷰 녹취록

Q :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섰는지 아세요? 혹시

- A : 알죠 당연히 알지, 옛날에는 요기 누가 이거 먹었나 안 먹었잖아. 근데 이북사람 할머니가 처음 밑에서 혼자 했어요

Q : 아 여기요~?

- A : 아니 요 밑에 골목은 요 위에 골목은 원조거든 위에 생기고 밑에 생겼거든요.

Q : 아. 네

- A : 할머니가 요 위에 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충북이란 건물을 샀어요. 충북 건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집 두 집 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지. 할머니가 혼자서 오래했어 자기 뜰에 별걸 다 했어 먹고살려고 하는 부지런하게 했는데

Q : 저 충북이란 집이요?

- A : 네네 그게 원조였어요, 그 할머니가 이북사람이고 충북사람이고 원조였는데 인제 돈을 많이 벌으니까 사람이 그걸 보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안지랑 시장이었거든? 안지랑 시장이 없어져버리고 곱창골목이 완전 형성화 됐다니까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는 한 25년, 20년? 한 15년? 20년? 했지 싶으다. 할머니가 이북사람인데 그러가 딸 하나가 있었어, 딸 하나가 암으로 죽어버렸어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사위하고 사돈하고 같이 하다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팔고 완전히 안하지, 원조라는 자체가 없어 인제 다 원조야 이젠

Q : 여기 돼지가 유명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 A : 네, 돼지가 유명한 게 아니라 곱창이 유명하지, 돼지니깐 돼지곱창이 그러니 말 그대로 돼지곱창이니깐 돼지 쉽게 말로는 돼지가 유명하다기 보다는 곱창이 유명하지, 막창, 곱창

Q : 음.. 감사합니다.

설문지

< 안지랑, 앞산 먹거리 골목에 관한 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생입니다.
 설문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논문을 위한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해당되시는 곳에 ☒ 체크하여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김홍목 (☎ 010-2889-0207)

1. 귀하의 성별, 나이, 거주지, 일행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별		나이	거주지	일행		
남 ____	여 ____	세	시(군) 구	가족 ____	친구 ____	연인 ____

2. 이전에 방문하신 곳은 어디십니까? (____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카페	① 앞산 카페골목 ____	② 기타 카페 ____
2. 음식점	① 안지랑 곱창골목 ____	② 기타 음식점 ____
3. 기타장소	____	

3. 이후에 방문하실 곳은 어디십니까? (____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카페	① 앞산 카페골목 ____	② 기타 카페 ____
2. 음식점	① 안지랑 곱창골목 ____	② 기타 음식점 ____
3. 기타장소	____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